



New Asia-Yale-in-China Chinese Language Center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Language Matters



Issue No. **12**
Summer 2005
Korean Special Issue

Editor/主編
Dr. Weiping Wu

Associate Editor/副主編
Ms. Chu Hsiao-mi

Editorial Board/編委
Ms. Chen Fan
Ms. Fan Ling
Miss Law Sau Wah, Zoe
Dr. Lee Siu Lun
Ms. Mak Suet Chi, Ellen
Ms. Wang Qi
Mr. Wong Ho-put

Production/製作
Ms. Doris Wong



* 要 Contents 目 *

Letter From Editor 編輯的話 편집부장의 한마디.....	3
Learning 學生園地 한국 학생들의 한마디	
金東俊 — 我為什麼選擇來香港學習中文? 지난 홍콩에서의 4 개월을 돌아보며.....	4
權庭慧 — 來香港學習中文的原因? 지난 홍콩에서의 4 개월을 돌아보며.....	5
元惠軫 — 我在香港的生活 홍콩에 와서.....	6
李起青 — 我的香港經驗 결코 잊혀지지 않을 홍콩에서의 나날들.....	7
金光秀 — 只要開始就成功了一半 중국어 배우기.....	8
Teaching 教師園地 CLC 선생님의 한마디	
潘 明 — 韓國學生常犯的語法錯誤 한국 학생들이 가장 틀리기 쉬운 중국어 문법.....	9-11
韓彤宇 — 你想知道研習所的老師對韓國和韓國同學的一點意見嗎? 당신은 CLC 어학원 교사들이 갖고 있는 한국 및 한국학생들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까?	12
Korean Initiatives by CLC and Related Activities 研習所韓國項目及相關活動	
한국인이 주도한 CLC 어학원 관련 행사	
ㄹ 研習所四十周年聚餐 / 韓國文化交流活動.....	13
ㄹ 韓國學生海外升學展覽.....	14
ㄹ 新季晚會 / 春季旅行.....	15
ㄹ 廣東話、普通話桌 / 最新消息.....	16

Special Issue for Korean Speakers

Online reading for CLC newsletters and the simplified character version:
<http://www.cuhk.edu.hk/clc/newsletter.htm>



香港中文大學

新雅中國語文研習所



Korean Special Issue

한국특집 韓國專輯

Language Matters is a CLC Newsletter, which is

- a student corner for Chinese learners to share their experience and concerns
- a platform for teachers at CLC and other similar institutions to share views
- an academic corner to share findings in teaching related research
- an update with comments on all teaching materials
- a bulletin board to publicize all CLC related news and activities

Learning / 學生園地

For CLC students and alumni to share their learning experience.

Teaching / 教師園地

For Chinese teachers to exchange views.

Research / 學術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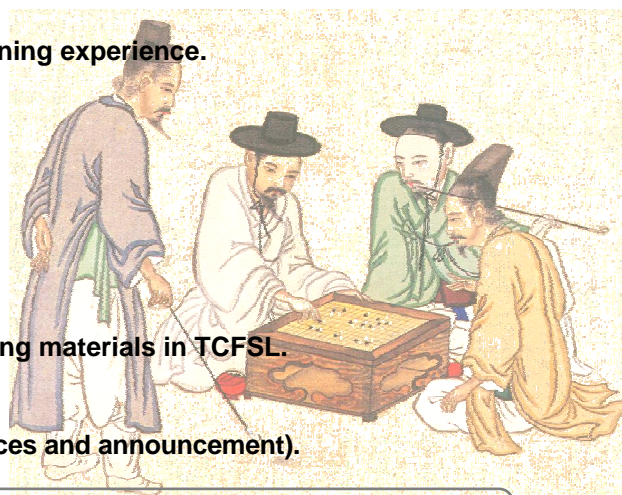
For discussions on teaching related research.

Materials / 教材信息

Updates, comments and issues related to teaching materials in TCFSL.

Activities / 中心動態

CLC academic activities (e.g. conferences, services and announcement).



本刊文章均為作者一得之見，不一定代表中心觀點
What is expressed by individual contributors only represents the writer's perspective

From the Editor

Starting in 2003, Language Matters(LM) is published regularly 4 times a year. Submissions for publication are welcome from all CLC teachers, students and alumni, as well as those who are involved with either teaching or learning Chinese (including Putonghua and Cantonese). All submissions should be sent to:

Editor, Language Matters
Chinese Language Center
Fong Shu Chuen Building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hatin, N.T., Hong Kong

Please note the following when sending us any submissions:

1. Language : Either in English or in Chinese.
2. Length : Between 300 to 500 words, no longer than 800 words in any case.
3. Focus : Should be related to either learning or teaching Chinese, including cultural aspects of language learning.

LM is distributed to about 500 to 800 programs and individuals in the field of teaching Chinese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in either electronic or printed form.

Address: New Asia--Yale-in-China Chinese Language Center,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Fong Shu Chuen Building,
Shatin, New Territories, Hong Kong, SAR

Tel.: (852) 2609 6727 Fax.: (852) 2603 5004
Web site: <http://www.cuhk.edu.hk/clc> Email: clc@cuhk.edu.hk



Dear Korean Students and Friends:

It is our pleasure to present to you a special issue of our Newsletter focusing on Korea. This is the first of such efforts, to be followed by one on Japan in due time, hopefully within this year if all materials needed can be gathered as expected. The current issue is part of our Korean initiatives, which aim at serving the needs of recent surge in enthusiasm among Korean speakers to learn Chinese.

Special thanks are due to Mr. Lee Myun-Gwan, Former Chairman of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who is among one of our earlier alumni and served as a bridge between CLC and many Korean nationals in the past decade. We hope this special issue, as Mr. Lee kindly suggested, will be able to reach every Korean now in Hong Kong and kindle, or rekindle their desire to learn Chinese. CLC is also greatly indebted to all our current and former students who voluntarily shared with us their experience in leaning Chinese and their life in Hong Kong. Two of our teachers have made a special effort to provide our readers with their insights on some pedagogical issues related to Koreans learning Chines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is special issue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hard work of the Editorial Board, especially the Associate Editor and the two guest editors Ms. Ahn Eun Young, Ms. Yang Oh Kyung.



Dr. Weiping Wu
Director of Chinese Language Center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erves the needs and enhances the well-being of the citizens of Hong Kong, China and the wider world community. CLC, as part of the University, is dedicated to providing quality language programs (both Putonghua and Cantonese) to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Since inception in 1964, more than 10,000 foreign students have studied at CLC, many of which are Korean speakers. Quite a few of the Center alumni are now holding key positions in their fields.

May I also take this opportunity to highlight one of the activities for our Korean Initiatives: the 4-week summer program, which promise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for students from Kore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They will be able to have a taste of living on the beautiful campus of the University, learning Chinese and touring Hong Kong and some cities in Mainland China during and after the program.

I sincerely hope that this special issue will help you learn more about our Center. On behalf of all CLC teachers and staff, I look forward to welcome you to our Center in the near future.



CLC Director and staff (*back row*) meet with current (*right, front row*) and former (*left, front row*) chairmen of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H.K., the representative (*middle, front row*) of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H.K.

지난 홍콩에서의 4개월을 돌아보며.....

Learning

學生園地

我爲什麼選擇來香港學習中文?



김동준(金東俊, Pusan National University)

흔히 영어와 중국어는 비즈니스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수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맥락에서 CUHK 는 영어와 중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생각되었다. 물론, 홍콩은 영국 식민지 영향으로 인해, 미국 영어가 아닌 영국 영어를 쓰는 점, 광둥성 지방이라 중국 표준어인 보통어가 아닌 광둥어를 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중국어를 배울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홍콩에서의 지난 4개월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꼭 사실이 아닌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흔히들 홍콩의 영어를 홍콩리쉬, 혹은 영국식 영어라고 부르며 또한 홍콩 사람들 대부분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일면 사실이지만, CUHK 는 대부분의 수업들이 영어로 진행 될 뿐만 아니라, English language Center, Independent Language Center 등을 통해 폭넓은 영어 교육의 선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CUHK 의 조직화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은 세계 여러 학생들과의 교류 및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영어 학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金東俊 (左)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콩은 광둥어를 사용하기에 중국어 공부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긴다. 하지만, CUHK 의 Chinese Language Center 에서 실시되는 중국어 수업은, 적은 학생 수, 중국 본토의 우수한 강사진으로 인해 최적의 중국어 학습 환경을 조성해 준다. 특히, 대부분의 CUHK 학생들은 고등 교육 기간동안 보통화

수업을 받기에 대부분 중급 이상의 보통화를 구사한다. 원한다면 수업 후 배운 내용을 친구들에게 바로 써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한 CUHK 중국 유학생 비중이 매년 높아짐에 따라, 교내에서 이들과의 언어 교류를 통한 기회도 활발히 주어지고 있다. 비록 홍콩의 공식언어가 광둥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CUHK 내부의 중국어 학습 여건은 여타의 중국

대학들보다 더욱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가끔 홍콩이 아닌 다른 영미권 학교를 지원했다면 어떠했을까하며 생각해 본적이 있었지만, 다른 어느 곳을 지원하더라도 영어와 중국어라는 언어를 배우기에 CUHK 만큼 적합한 장소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我覺得來香港最好的就是我可以同時學習英語和普通話。中文大學提供很多英語講的課，學生可以聽自己喜歡的課，還可以跟從不一樣的國家來的同學們一起討論。此外，中大也有專門提供語言訓練課程的單位，比如英語教學單位和新雅中國語文研習所。我現在在新雅中國語文研習所學習普通話，老師們都講得很好，練習普通話的機會也很多。所以來香港交換學習的經驗對我來說不比美國差。





지난 홍콩에서의 4개월을 돌아보며.....

來香港學習中文的原因?

권정혜 (權庭慧, Ewha Womans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홍콩을 지원해서 온 가장 큰 이유는 중국문화권이기 때문이다.

중국문화권이면서도 세계 여러 곳의 문화가 섞여있는 곳이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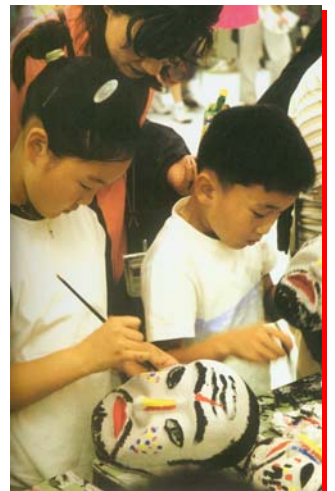
역시 예상대로 교환학생 대부분은 미국, 중국, 유럽에서 온 학생들로 섞여있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몽콕의 야시장이나 포탄의 포장마차는 중국문화를 보여주지만, 센트럴의 고층 다국적 기업들은 홍콩이 해외시장으로 향하는 아시아의 출구임을 보여준다. 네온사인이나 거리는 한자로 가득 차있지만, 웬만한 종업원들도 불편 없을 정도의 영어를 구사하고 있어, 중국말을 못하는 나도 큰 문제없이 살 수 있었다.

내가 CUHK 를 선택한 이유는 이 학교의 중국어 프로그램이

유명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친구도 있었고 중국어프로그램만 한 친구도 있었는데 둘 다 만족스럽다며 나에게 권했었다. 듣던 대로 중국어 수업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선생님들도 열성적으로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었고, 강의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홍콩에서 보내게 된 귀중한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한 것 같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해외로 나와보니 역시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나의 소중한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我選擇來香港當交換學生，其中之一的原因是因為香港位處中國文化圈。在此我不單可體驗中國文化的特色，同時我還可以練習英語。至於我選擇中文大學則是因為這裏的普通話課程非常有名。我想這是眾所周知的，等我來到這兒我發現老師們都很認真地教學，而且課程也很有體系，的確極有效果。我希望後來的學生們也能擁有類似我這樣珍貴的經驗。





홍콩에 와서 我在香港的生活

Learning

學生園地

원혜진 (元惠軫, Yonsei University)

지난 4 개월 동안 홍콩에서 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다양한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다. 친절한 홍콩 친구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자 모인 각양각색의 사람들과의 만남은 홍콩이 아니면 경험하기 힘든 진귀한 것이었다. 캠퍼스 안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가능케 하면서 같은 중국어를 배우면서도 다양한 가치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중문대학에서 수강한 보통어 수업을 비롯한 수준 높은 강의들은 학구적인 면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돌아본 홍콩의 여러 지역 역시 아시아의 허브로서 홍콩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국의

서울보다 특유의 동양적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양 문화의 깊은 면모를 접할 수 있는 장소는 홍콩이 아니면 찾기 힘들 것이다. 캠퍼스 내에서의 생활도 평화롭고 만족스럽지만, 학교 밖에서는 홍콩의 지리적 여건 덕분에 중국 본토나 마카오 등지로의 여행을 통한 색다른 경험을 만끽할 수 있었다. 특히 계림과 양수로 떠난 여행은 홍콩과는 다른 느낌의 중국 본토만의 색깔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경험한 것과 느낀 것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남은 4 개월 동안 만날 새로운 사람들과 경험에 나는 여전히 설레인다.



我覺得在香港生活的最大好處是能認識很多各國來的學生。除了親切的香港朋友，跟這些有不同成長背景的人說話也讓我獲益匪淺。而普通話課對我的學習幫助很大。大學內的生活的確安靜、和平，這些都讓我感到很滿足。此外，像是去桂林，陽朔旅行的經驗更令我十分難忘。我希望在香港最後這段時間內也能多看新的事物，並且認識更多新朋友。

결코 잊혀지지 않을 홍콩에서의 나날들 我的香港經驗

이기청 (李起靑, Ewha womans University)

처음 홍콩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을 때, 주위의 반응은 참 다양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홍콩이 영어권 지역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에 의아해 했고, 사스나 조류독감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쇼핑의 천국, 환상적인 야경의 도시로만 인식되던 홍콩을 더 넓고 깊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在國際慶祝會的時候拍的照片。李起靑(右一)、權庭慧(右二)、元惠軫(中)和金東俊(左一)。



홍콩에 도착하던 첫 날, 날 반겨주던 엄청난 습도와 무더위부터, 처음 Tsim Sha Tsui 항구에서 야경을 보던 날의 감동, 그리고 주변 곳곳에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의 소풍과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하던 크리스마스트리와 신년 메세지까지 홍콩은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나를 들뜨게 했다.

중문과 학생으로서 내가 홍콩에서 누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장점은 영어와 함께 97년 중국반환 이후, 더욱 널리 쓰이는 중국어(普通話)를 함께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홍콩 현지 언어, 광둥어까지 맛볼 수 있어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젠 원래 집보다 더 내 집같이 익숙해져 버린 이 곳 홍콩에서,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보고 갈 수 있을까? 홍콩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CUHK 에서 공부하며 알게 된 학구적인 문제들, 그리고 지리적 이점 때문에 손쉽게 갈 수 있었던 마카오, 계림, 북경으로의 여행이 안겨준 소중한 추억들을 벌써부터 그리워하며 남은 홍콩에서의 나날들을 더욱 아름답게 채워 나가고 싶다.

我記得我來香港的第一天，那天的天氣很濕、很熱。我還記得第一次看香港夜景的那一天，第一次去看香港的小島的那一天，耶誕節時的很多裝飾，新年時那華麗的火花，我在香港生活的日子已經不少，直到今天，香港每天改變它的樣子讓我激動。我還能得到很寶貴的機會，練習普通話和英語。我來香港以前很想學廣東話，但是在韓國很難找到教廣東話的地方，在中文大學新雅中國語文研習所（CLC）學習廣東話跟普通話，對我來說很有意義。我已經太習慣住在香港了，想知道我餘下的日子還能看多少，經驗多少。我感謝在香港遇到的珍貴的姻緣，在中文大學讓我苦惱的學習難題，去澳門、桂林、北京旅行的回憶，剩下的日子也要多看、多體驗，好好兒地過下去。

Learning

學生園地



只要開始就成功了一半

Learning

學生園地

중국어 배우기

김 광 수 (2005년 4월) 金光秀

약 2 년전 어느 날 , 한 친구가 중문대학에 등록하여 중국어를 함께배워 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실제 홍콩에 오기 전부터 중국어 공부를 해 볼 생각은 있었으나 항상 일이 바쁘거나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는 핑계로 그동안 미루던 참이라 저녁 시간 (일주일에 나흘)을 내어 공부를 시작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2003 년 초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SARS 의 영향으로 그 해 5 월에야 겨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있습니다. 눈감작할 사이에 2 년이 지났는데, 나의 중국어 실력이 아직 중급에도 못 미치지만 기본 수준은 지났다고 자부하여 만족하고 있습니다.

실제 홍콩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만 잘하면 중국어 실력은 그리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매년 고속성장 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고려한다면 중국어 회화는 필수적이며, 중국어를 공부하게 되면 중국사람과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어 공부를 하려는 특히 많은 한국 사람들 생각이 중국어는 발음이나 성조가 영어에 비하여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도 그로 인하여 중국어 공부를 미루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 중국과 한국은 서로간의 문화 배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하고 영어 공부하는 정력의 반만 투자해도 중국어 공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의 최고 실력을 100 점 이라 한다면 아직 본인의 실력은 20 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어 방송을 이해하고 중국어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 되려면 60 점 정도는 되어야 할텐데, 아직 2-3 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비록 핑계이긴 하지만 나이도 들고 기억력도 자꾸 떨어 지는데, 선생님들이 인내심을 갖고 계속 지도해 줄 지 걱정입니다만 계속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2년여 전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집 사람이, 이미 나이도 50 이 넘은 사람이 이제 와 무슨 외국어 공부를 새로 시작한단 말이나?고 얘기 하기에 60 이 되어 공부를 시작하면 조금 늦을 것 같아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려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공부를 포기하려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입니다.

大概兩年前的一天，有朋友問我要不要在中文大學學習中文，其實在來香港之前我有學習中文的打算，但因工作忙、年紀大等等理由，沒有開始學習中文，最後我決定接受朋友的建議用每天晚上（其實一個星期四天）學習中文了。

2003年初決定的學習中文的計劃，因SARS的影響推遲了，到2003年5月才開始學習，韓國有一句話——“開始就成功了一半”。

現在大概兩年過去了，我的中文還達不到中等水平，可能只是超過了最基本的水平，但我還是滿意，其實在香港工作的時候，只要會說英文就沒問題，中文不流利也沒什麼問題，但如果考慮每年都高速發展的中國市場，學習中文是必須的，我相信學習中文可以更好地了解中國人和中國市場。

韓國人都認為，中文的聲調和發音比英文難得

多，我也是因此原因推遲了學習中文。但事實上，因為中韓文化背景相似，只要好好學習，拿出一半學習英文的精力就能學好中文，我認為中文比英文更容易學習。

如果中文最高水平為100分的話，我覺得我目前的水平可能有20分，為了能看、聽電視上的國語新聞，看懂中文報紙，就是說想拿60分的話，可能還要學習2-3年，怕老師們不能耐心地教我了。

兩年前打算學習中文時，妻子說“已經50多歲了還學什麼外語”，但我認為如果到60歲學習的話就更晚了，所以我開始學習了。

希望大家不要覺得自己年紀大了放棄學習，現在開始學習吧，那樣的話，大家一定不會後悔的。



韓國學生常犯的語法或用詞方面的錯誤,大概是由以下三種原因造成的:

- 一. 中文某些句型或詞語在韓文中沒有類似的表達方式,所以學生較難掌握.
 - 二. 中文及韓文中有類似的表達方式,但句型或用詞並不相同,在學習時容易受到干擾.
 - 三. 中文及韓文的表達方式相同,但學生卻以為不同,或以為中文和英文相似,因而說錯.
- 絕大部分的錯誤都是出於第一或第二種原因.

以下是簡單的說明:

1. 在韓文中,動詞總是置於句末,賓語及主語在前,而動詞前各詞的詞序有較大的自由度.因此,韓國學生其中一個最常見的錯誤就在於賓語的位置.
特別是韓文中沒有‘動賓結構’,所以韓國學生較難掌握.
病句舉例: **畢業大學** (大學畢業); **見面他** (跟他見面);
結婚過兩次 (結過兩次婚); **有興趣這件事** (對這件事有興趣);
找了半天你 (找了了半天); **給一本書我** (給我一本書)
2. 因韓文是動詞在後,有些韓國學生說中文時,特別是在說較長的句子時,容易落掉句中的動詞.
病句舉例: **我先公共汽車** (我先坐公共汽車);
我的辭典很舊的 (我的詞典是舊的);
在五班學中文的學生韓國人 (在五班學中文的學生是韓國人)
3. 韓文的動詞有時態.對於過去發生的事,不管是否應該,某些韓國學生總會習慣性地加上一個‘了’;還有,加‘了’以後,賓語的位置也是一個問題.
病句舉例: **我以前認識他了** (我以前認識她);
昨天晚上八點我正在看電影了 (昨天晚上八點我正在看電影);
談話了一會兒 (談了一會兒(話))
4. 韓文中沒有與中文類似的‘程度補語’結構,而是以‘副詞+動詞’的方式表達.比如‘做得很好’,韓文的說法是‘好做(過去式)’;而中文‘好好做’和‘會好好做’,韓文也是用相同的句型,只是動詞是現在式或將來式.
病句舉例: **說漢語得很好** ((說)漢語說得很好);
我做飯很好 (我做飯做得很好);
她長跟爸爸一樣 (她長得跟爸爸一樣)
5. 韓文只有極少數與中文類似的‘結果補語’,中文絕大部分的‘結果補語’在韓文中都是以‘副+動’的方式表達.比如‘做完了’,韓文的說法是‘都做了’;‘寫對了’是‘對地寫了’.另外,韓國學生對某些‘結果補語’的含義有誤解,比如容易誤會‘做好了’是‘做得好’的意思.
病句舉例: **完了吃飯** (吃完飯了); **對地做了** (做對了)
6. 中文的‘可能補語’在韓文中有類似的結構,但沒有中文分得那麼清楚,所以韓國學生對不同的‘可能補語’的含義較難掌握.中文含意不同的‘可能補語’在韓文中基本上都是以‘動詞+詞尾“(不)能”’來表示,而在動詞前面加副詞或其他短語來表達不同的意思.比如‘吃得完’;‘吃得起’;‘吃得著’,韓文都是‘副詞或短語+吃+詞尾“能”’.而且,韓文這類句子中的補語可用過去式,所以會出現‘**吃得完了** (吃得完)’之類的錯誤.

7. 中文的‘簡單趨向補語’在韓文中有類似的結構,主要問題在於賓語的位置。
病句舉例: **回來了家**(回家(來)了); **回去韓國**(回韓國去)。
8. 韓文沒有與‘是……的’相等的句型,而是以語調或不同的詞尾表示強調。因此韓國學生對甚麼時候可以用‘是……的’和甚麼應該放在‘是……的’中間較難掌握。
病句舉例: **他是昨天出了甚麼事的**(他昨天出了什麼事);
我們是明天去參觀的(我們明天去參觀);
我是昨天在食堂吃飯的(我昨天是在食堂吃的飯)……
9. 韓文沒有‘把’字句,韓國學生較難掌握。不過‘把’字句的詞序與韓文相近,韓國學生應該比較容易理解。問題主要在於何時應用‘把’、副詞和能願動詞的位置、還有動詞後的其他成分。
病句舉例: **把中文努力學**(努力學習中文);
把作業做得好(把作業做好);
把餃子吃在食堂裏(在食堂裏吃餃子)……
10. 下面再舉一些語法和用詞方面錯誤的例子。大家想想是甚麼原因造成的呢?
說這樣(這樣說); **說我一件事**(告訴我一件事);
你可以受傷(你可能受傷); **以前沒認識他**(以前不認識他);
一個月半(一個半月); **有點儿好**(比較好);
我不記住(我沒記住/我記不住); **不努力的時候就不能畢業**(不努力的話就不能畢業);
每天正在學習(每天都學習); **有多學生**(有很多學生);
沒有潮濕(不潮濕); **信被寫完了**(信寫完了)……

한국 학생들이 가장 틀리기 쉬운 중국어 문법

- 한국어는 동사의 위치가 문장 맨 뒤에 오고 목적어나 주어는 동사앞에 오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중국어의 목적어 위치이다. 또 중국어에는 타동사와 목적어가 붙어 또다른 동사의 형태를 가지는 동사가 있는데 이런동사는 문장에 따라 붙여쓸수도 있고 떨어뜨려 쓸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학생들은 이런 VO 동사를 그냥 단순한 동사라고 보고 <VO+목적어>순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예: 대학을 졸업하다. 너를 만나다.
결혼을 두번했다. 이일에 흥미가 있다.
너를 만나질 찾았다. 나에게 한권의 책을 주세요.
-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중국어는 목적어의 위치가 한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종종 주어와 목적어만 말하고 동사를 잊어버리고 안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 나는 먼저 버스를 탑니다.
내 사전은 오래된 것입니다.
5 반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한국사람 입니다.
- 한국어의 과거형은 동사가 과거형으로 바뀌므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이와 같을것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동사 뒤에 了만 쓰면 과거형을 만들수 있다는 생각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了는 과거형으로 쓰이는 용법외에도 아주 광범위하면서도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了를 사용할때 목적어를 어디에 놓느냐 하는것도 문제가 되곤 한다.
예: 나는 그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어제밤 8시에 나는 영화를 보고있었다.
잠시 이야기를 했다.



4. 중국어의 정도보어(Complement of Extent)의 특수성때문에 한국인은 이런 문장을 만들때 한국어의 언어습관대로 부사+동사의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를 잘 하다’의 중국어표현을 한국어형식대로 쓰게 되는데 이는 틀리는 것이다. 중국어는 동사(하다) + 得 + 형용사(잘)의 순서로 쓰여야만 한다. 또 한가지 주의할 것은, 중국어의 ‘잘해’와 ‘잘 할께요’를 표현할때 정도보어와 능원동사를 사용해서 써야하는데 한국어식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잘(부사)+해(동사)’로 틀리게 표현할때가 있다.
예: 중국어를 아주 잘 말한다.
나는 밥을 잘 한다.
그녀는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다.
5. 중국어의 결과보어(Resultative Complement)는 한국어에서는(부사+동사)로 표현되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다 했다’는 중국어의 결과보어와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다 했다’라고 표현하면 중국어의 결과보어와 같은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다. 중국어의 都做了의 뜻이 (모두 다 했다)이기 때문에 한국어에는 같은말이 문장에 따라 뜻이 달라지지만 중국어는 두가지를 분명하게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므로 결과보어를 사용할때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혼동때문에 결과보어를 쓸때 많이 틀리게 되는것 같다.
예: 밥을 다 먹었다. 맞게 했다.
6. 중국어의 가능보어(Potential Complement) 용법은 한국어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사+수 있다/수 없다’로 표현하고 또는 동사앞에 부사구나 부사절을 사용해서 그 뜻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는 다르다. [동사+得+ 가능보어] 로 표현한다. 또 가능보어는 과거형과 함께 쓰일 수 없지만 한국어에서는 같이 쓸수 있다. 예를 들어 “다 먹을 수 있었다”와 같은 경우이다.
7. 중국어의 방향보어(Directional Complement)용법은 한국어의 구조와 비슷해서 많이 틀리지 않지만 문제는 목적어의 위치이다.
예: 집에 돌아왔다. 한국에 돌아가다.
8. 중국어의 是---的 용법은 한국인에게 있어 매우 생소하다. 한국어는 어조를 높힌다든가 어미변화를 함으로써 강조한다. 그래서 어떤경우에 사용하는지 어떤내용이 강조되는지 어떤 것이 是---的 중간에 들어가야 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에게 어제 무슨일이 생겼던 겁니까?
우리는 내일 구경하러 갈 것이다.
나는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은거다.(식당에서 먹은거지 다른곳에서 먹은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
9. 把용법- 한국학생들이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중국어에서 把를 쓰게 되면 오히려 한국어 어순과 같아짐에도 불구하고 어느경우에 이 용법을 써야하는지, 또 부사나 능원동사가 들어갈때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를 잘 명확히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다. 이때 동사의 형태도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런부분을 파악하지 못한다.
예: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다.
숙제를 잘 해라.
식당에서 만두를 먹다.
10. 그밖에 틀리기 쉬운 예:
- | | | |
|-----------------|--------------------|----------------------|
| 이렇게 말한다. | 나에게 한가지 일을 말해주다. | 너는 다칠수도 있어. |
| 이전에는 그를 알지 못했다. | 한달 반. | 좀 나아졌다. |
|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노력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다. | 매일 공부하고 있다(매일 공부한다). |
| 많은 학생들이 있다. | 습기가 없다. | 편지를 다 썼다. |



你想知道研習所的老師對韓國 和韓國同學的一點意見嗎？

당신은 CLC어학원 교사들이 갖고 있는 한국 및 한국학생들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까?

韓彤宇老師 (整理)

老師們關於韓國的聯想： 교사들이 생각하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

人參雞湯，燒烤肉，雪，泡菜，柚子茶，涼麵，太極圖案，韓國字，跆拳道，《大長今》，足球，裴勇俊，示威，時髦，濟州島。

삼계탕, 첼판구이, 눈(겨울), 김치, 유자차, 냉면, 태극무늬, 한글, 태권도, <대장금>, 축구, 배용준, 시위, 최신식 유행, 제주도.

關於韓國同學，老師們認為韓國同學的特點： 한국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 및 한국 학생들의 특징:

團結，尊敬師長，有禮貌，家庭觀念重，直爽，熱情，性急，努力，用功，認真，表達意欲強。

단결, 스승존경, 예의바름, 가족관념중시, 솔직, 친절, 급한 성격, 노력, 열심히 공부함, 진지, 표현력이 강함.

韓國同學學習中文所佔的優勢： 한국학생이 중국어 공부할때 유리한점:

一般韓國同學認識一定數量的漢字，中韓兩種語言中有許多共同詞彙。對漢字的掌握和理解較沒有漢字背景的學生有優勢。韓國學生受儒家文化影響較大，因此更能掌握漢語的深層涵義。

대부분의 한국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한자를 알고 있다. 한자와 한글사이에 많은 공통된 단어들이 있으므로, 한자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다른나라 학생에 비해 쉽게 한자를 정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리한점이 있다. 유교사상의 영양력 또한 커서, 중국어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中文學得好的韓國同學的共通之處： 중국어를 잘하는 한국학생들의 공통점:

用功，每天復習，課後也儘量找機會練習，認真，有耐性，能按部就班地學習，注意語法規則，初學時不介意重複，不怕犯錯，願意嘗試使用新學的詞語。

열심히 노력, 매일 복습, 수업에서 뿐 아니라 항상 기회를 찾아 열심히 연습, 진지함, 끈기, 규정대로 착실히 공부함, 문법을 주의, 초급일 때 반복하는걸 개의치 말아야 함, 실수를 두려워 하지 않고, 새로 배운 단어를 항상 사용해본다.

一說起韓國,你會聯想到什麼?

교사들이 생각하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



人參雞湯，燒烤肉，雪，泡菜，柚子茶，跆拳道，《大長今》，足球，裴勇俊，示威，時髦，涼麵。

삼계탕, 첼판구이, 눈(겨울), 김치, 유자차, 냉면, 태극무늬, 한글, 태권도, <대장금>, 축구, 배용준, 시위, 최신식유행, 제주도.

研習所四十周年聚餐 CLC 40th Anniversary Celebration Banquet

研習所於二零零三年十一月二十八日舉行四十周年聚餐，有很多韓國學生及校友參加。當晚的氣氛相當熱鬧，師生們難得聚首一堂並緬懷過去大家在研習所度過的難忘時光。韓國學生金度英同學擔任大會司儀，金同學雖是只學過三個月的普通話的學生，但毫不怯場，能將所學完全發揮出來，難怪他在研習所舉辦的“中文大學國際學生普通話比賽”初級組別中獲得冠軍的殊榮。

Activities

中心動態

2003년 11월 28일, CLC 어학교에서 40주년 기념회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많은 한국 학생들 및 학우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말 즐거운 분위기로 어우러져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진행을 맡았던 한국 학생중 김도영(金度英) 학생은 비록 보통어 초급반 학생이었지만 유창한 보통어 솜씨로 진행 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중문대학국제학생보통어 경쟁시험'에서 초급반 부문 장원한 학생이기도 합니다.



金度英同學

部份韓國學生和老師的合照，當晚的照片可在以下的網址找到：
http://www.cuhk.edu.hk/clc/banquet_photo.htm

韓國文化交流活動 Korean Cultural Exchange

二零零四年五月二十七日於香港中文大學邵逸夫堂舉行的韓國文化交流活動中，本所普通話組的安殷英同學擔任韓國文化交流活動的司儀並和其他研習所同學、老師及曾留韓的中大學生合唱兩首中文和韓文名曲：“青春舞曲”和“阿里郎”。



韓國學生、老師及曾留韓的中大學生大合唱。

2004년 5월 27일, 홍콩중문대학에서 진행된 한국문화교류행사로 현재 본교에서 보통어를 배우고 있는 안은영(安殷英)학생이 진행을 맡았고, 교사와 학생들 모두 함께 '청춘무전(青春舞曲)' 과 '아리랑(阿里郎)'을 합창하였습니다.



安殷英同學擔任司儀



前任駐香港大韓民國總領事館總領事姜根鐸先生(左)和前任香港中文大學校長金耀基教授(右)。

제 20 회 해외 유학·어학연수박람회(춘계)
Seoul Coex 3월 26-27 일



香港韓人商工會前會長李勉官先生與本所所長吳偉平博士給各韓國大學中文系的邀請合作的信件。

홍콩 한인상공회 전 회장 이면관님 및 중문대학언어원 소장 吳偉平 박사님께서 각 한국대학 중국어부에의 협력을 권한다는 편지입니다.

香港韓人商工會前會長李勉官先生與 中文大學副校長鄭振耀教授共同簽署的的信件，支持本所參加韓國學生留學展覽。

홍콩 한인상공회 전 회장 이면관님 및 홍콩중문대학 鄭振耀 교수님의 공동서명된 편지로, 본 언어원이 한국 유학박람회 참가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研習所的業務發展主任麥雪芝女士於三月二十六、七日在韓國首都首爾為本所宣傳及推廣課程，並預先印製大量的韓文小冊子及宣傳品，這次的“韓國學生海外升學展覽”有數百個國家的學校參加，而許多當地的學生對本所提供的廣東話及普通話課程均感興趣，並查詢有關課程內容及報名手續等。麥女士順道探訪當地的大學並介紹所內的課程。

參展心聲

這是我首次到韓國參展，心情戰戰兢兢。幸得到副校長和所內教職員的祝福和當地熱心的工作人員協助，特別感謝前韓人商會會長李勉官先生及香港經濟貿易代表部首爾顧問李熙景先生，給予很多寶貴意見與協助。2日展覽共有 28000 人到場參觀，參展單位約三百多個，包括 34 所中國及香港院校。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의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홍콩과 한국에서 많은 좋은 분들이 도와 주셔서 무사하게 끝나 다행입니다. 특히 한인상공회 전 회장 이면관님 및 홍콩경제 무역 대표부 서울컨설턴트 이희경님께 감사드립니다.



香港經濟貿易代表部首爾顧問李熙景先生(右)和麥雪芝女士(左)合照。



麥雪芝女士(左)於會場內和當地的工作人員合照。



新春晚會 CLC Spring Party

本所每年均舉辦新春晚會，節目內容豐富，有關於中國文化的活動，如寫揮春、猜字謎、茶藝、摺紙等，也有顯現學生多才多藝的綜合表演，包括舞獅、舞蹈、唱歌、結他、繞口令及短劇等。師生們亦樂於烹調自己國家的美食佳餚，讓我們大快朵頤。

學生感想：

매해 신년 행사로, 중국어 실력을 뽑내는 학생들의 장기 자랑은 물론,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입은 전통의상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파티입니다.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 다같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얘기를 나누며, 다른 나라의 민족춤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每年一次的活動，學生用學到的中文來表演，還有能看從不同的國家來的同學們穿民族服裝的樣子，是很特殊的晚會。老師們和學生都一起一邊吃大家帶來的菜，一邊聊天。大家一起學其他國家的民族舞，一起跳，過得非常高興。



穿上韓國民族服的學生和老師合照

韓國學生趙鎮善同學(左)擔任本年度新春晚會司儀



寫揮春



舞獅



所長吳偉平博士(左)和韓國學生及李兆麟老師(右)合照

春季旅行 School Outing

研習所的春季旅行於三月十九日舉行，前往三個熱門的景點：山頂、淺水灣及赤柱。同學們一面練習語言，一面欣賞美麗的維港景緻。在春、秋季本所分別安排旅行活動讓學生參與，藉此加深他們對香港的認識和拓闊學習語言的環境。學生亦積極參與，好好把握這個練習的機會。

學生感想：

한학기에 한번 가는 소풍, 각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는 홍콩을 더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홍콩의 각 명소를 견학도 하며, 홍콩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每個學期一次的的旅行，對從不同的國家來的同學來說是很好的仔細瞭解香港的機會。趁著參觀香港的名勝古跡的機會，也能享受香港美麗的風景。



大嶼山



山頂

每個學期研習所均安排廣東話和普通話桌的聚會，讓學生認識更多所內的老師和來自不同國家的學生，交流、分享學習語言上的心得，故每次學生均積極參與，並帶來美食佳餚和同學、老師一起品嚐。

學生感想:

매 학기중 있는 행사로 중국어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는 즐거운 점심시간 입니다. 비록 한시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와 친해질 수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語言桌是每個學期的大型活動之一。利用中午的時間，老師和學生一起，一邊吃飯，一邊聊天。雖然一個小時的時間比較短，但是是一個能互相認識的好機會。



普通話桌



廣東話桌

最新消息 Updated Information

研習所於四月份推出多項廣東話和普通話新課程，適合本地、國內及外籍人士參加，詳情可向研習所索取資料或在以下網址下載 (http://www.cuhk.edu.hk/clc/ssp_brochure.htm) 「普通話及廣東話課程 2005」小冊子。另本所亦安排數天的課程諮詢日，為有興趣報讀的人士介紹研習所的課程，提供相關的資料。

課程諮詢日 2005 Information Seminars	地點 장소 Place	時間 시간 Time
2005年5月25日(星期三) May 25, 2005 (Wed)	香港中文大學新雅中國語文研習所 Chinese Language Center, CUHK	2:30-4:30pm
2005年5月31日(星期二) May 31, 2005 (Tue)	美國銀行中心 Bank of America Center	12:00- 2:00pm
2005年8月17日(星期三) August 17, 2005 (Wed)	香港中文大學新雅中國語文研習所 Chinese Language Center, CUHK	2:30-4:30pm
2005年8月19日(星期五) August 19, 2005 (Fri)	美國銀行中心 Bank of America Center	12:00-2:00pm

研習所課程的韓版小冊子已印製完成，如欲下載資料，請到以下網址：
http://www.cuhk.edu.hk/clc/k_booklet.htm。

소책자 다운로드 내용 Content:

- 학생국적 및 졸업생 Student nationalities and alumni
- 학생의 의견란 Students' feedback
- 홍콩중문대학 및 언어원의 소개 Introduction on CUHK and CLC
- CLC 중국어 프로그램의 특징 Feature of CLC programs
- 스태프 Staff
-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구조 Program structure
- 여름학기 프로그램 Summer Program
- 정기 프로그램 Regular Program
- 컴퓨터화된 회화 실력 평가 Computerized Oral Proficiency Assessment
- 중국어를 배우는 재미 It is interesting to learn Chinese language

